**여명학교 10월 기도제목** 2015.10.29. 목요일

**<대한민국과 통일>**

**1, 지난 10월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다행히 잘 성사되었다. 결혼 6개월 만에 헤어진 부부가 아들과 함께 상봉하는 등 눈물겨운 장면도 많았다. 이산가족상봉이 정기례화되고,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**

**2, 10월15일에 열린 한반도 포럼과 평화 오디세이에서는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통일이 아닌평화 공존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. 남북한이 상호 평화와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**

**3, 대한민국은 쌀이 넘쳐 바다에 버리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대한민국이 관대한 아량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, 경제, 문화, 교육, 의료, 구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 및 민간 교류가 진전되고 확대되어 가도록**

**4, 대한민국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보수 진보의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. 속히 국민 통합의길을 걷고, 정치가 안정되고, 경제가 건실해지고, 통일을 감당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**

**<북한과 북한이탈주민>**

**1, 북한 권력층 리더십이 김일성 100, 김정일 50~70, 김정은 10 이라고 한다. 휴대폰 사용자가 370만명, 누적 해외근로자가 22만명, 380여개의 장마당 등으로 인민의 충성심이 약해지고 있다.🡪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,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배워가며,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통일을 향한 준비도 이루어지도록**

**2, 중국 등 제3국에서 불안정하게 배회하는 탈북민들과 그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돕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합당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도록**

**3, 남북간 70년 분단 상태에서 생긴 이질화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. 🡪 이들이 잘 배우고, 행복하게 정착하고,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**

**4, 최근에 중국 서열 5위 류윈산의 방북 이후 양국 간에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호시무역(국경지역 무관세 교역)도 시작되었다고 한다.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, 북한이 개방 개혁되는 계기가 생기도록**

**<학생들>**

**1>2학기에 현재 11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.**

* **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, 공부에 열정이 넘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**
* **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해져 가도록**

**2>35명의 고3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형 중입니다.**

* **아직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의 대학 합격이 잘 이루어지고, 대학 진학 후 잘 적응할 준비를 갖추도록, 일찍 취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과 직장을 주시도록**

**3> 2학기부터 비보호 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육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**

* **한국어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, 학생들의 한글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, 재미있게 공부하며 만족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**

**4>여명학교를 졸업하고 대학, 사회, 직장에 있는 졸업생들을 위하여**

* **학업을 잘 감당하고, 직업을 잘 구하고,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 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**
* **좋은 졸업생 모델들이 나오고, 연락이 두절된 17명의 학생들과도 연락이 이루어지도록**

**<학교>**

**1>3개년 목표로 여명 통일준비학교 건립을 위해 기도합니다.**

* **통일인재를 양성하고, 통일한국의 북한학교 교육의 모델이 되며,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학교가 되도록**
* **학교 건립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잘 성사되고, 적절한 위치에 최선의 학교를 건립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**

**2>11월23일(토) 오후3시에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<미러클>이란 주제로 여명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. 필요한 준비를 잘 갖추고, 홍보가 잘 이루어져 1500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참석히고, 학교와 후원자들이 소통하며 공감하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**

**3>여명학교의 5가지 중점 교육 -주도성교육, 독서교육, 인성교육, 봉사교육, 건강교육-이 잘 정착되어 학생들의 미래 인생에 큰 유익을 제공하도록**

**4>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, 교육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도록**

**5>불임 남 교사-김신동, 강수산-태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, 김지영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**